

칼빈의 ‘Sola Scriptura’

김 종 희

백석대학교, 역사신학

1 서론

‘Sola Scriptura’(오직 성경으로) 원칙은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사용했던 주요 슬로건들 중 하나이다.¹ 당시 교회의 관습과 신앙을 기독교회의 근원, 즉 초대교회의 것들로 되돌리고자 했을 때, 그들은 이 원리를 내세웠다. 초대교회는 이 원칙에 충실한 반면, 중세교회는 이 원칙에서 벗어났다는 입장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맥그레스(Alister E. McGrath)는 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이 원칙은 로마 가톨릭의 입장과 두 가지의 차이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성

* 논문투고일 : 2013. 7. 29

논문수정일 : 2013. 8. 29

계재확정일 : 2013. 9. 7

1 맥그레스(Alister E. McGrath)는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의의 교리를 종교개혁의 내용적 원칙으로, ‘Sola Scriptura’는 그 형식적 원칙이라고 말했다. Alister E. McGrath, *Reformation Thought: An Introduction*, 4th ed.(West Sussex:Wiley-Blackwell, 2012), 91.

경에 다른 지위를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 성경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했다는 것이다. 즉 정경과 외경을 구별하였고, 성경의 권위를 전통 위에 세웠다. 그는 성경 해석에서 전통의 역할에 대한 입장을 세 그룹으로 구별하였다. 그 중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으로”의 원칙으로 모든 기독교 신학과 관습이 궁극적으로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고 확신했으며, 이렇게 하여 성경이 기독교 신학의 유일한 규범적 원천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립했다는 것이다.²

곤잘레스(Justo L. González)에 의하면, 루터는 성경과 전통이라는 양자 사이의 긴장관계에서 성경의 우위성을 확신했다. 반면 기독교 인문주의자로서 성경에 접근한 츠빙글리는 성경이 후대의 전통보다 성경이 더 좋은 증언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이 전통보다 역사적으로 우선하고 신앙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였다.³

그러면 칼빈에게 ‘Sola Scriptura’는 어떤 의미였는가? 대부분의 칼빈 연구자들은 칼빈이 성경을 신학의 원천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⁴ 그러나 이 원칙이 칼빈에게 단순히 신학의 원천으로서의 성경이

2 McGrath, *Reformation Thought*, 97-102. 성경 해석에서의 전통의 역할에 대한 세 가지 입장은 첫째, 재세레파로 급진적 종교개혁자들, 둘째, 종교개혁자들, 셋째, 트렌트 공의회 입장이다. 재세레파는 전통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개인의 사적 판단을 교회의 공동의 판단보다 우위에 놓았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에 있는 관습이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지는 않더라도 성경적인 것은 인정한다. 이들의 권위는 성경의 권위에 종속된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트렌트 공의회는 전통을 또 하나의 부가적인 계시로 보며, 이중 근원 교리를 확인했다.

3 Justo L. González,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3vols. 2nd ed. (Nashville: Abingdon Press, 1987), 3: 72-73.

4 Cf. 고광필, “칼빈의 성경 해석 논리.” 『光神論壇』 7 (1995): 201-254와 “칼빈의 성경해석의 원리와 방법.” 『光神論壇』 18 (2009): 87-123; 김영규, “칼빈에 있어서 오직 성경.” 『神學正論』 11 (1993): 569-594; 문석호, “신학적 사고의 근원으로서의 계시이해 -성경적 가르침과 세속 철학의 구분을 시도한 칼빈 (John Calvin)의 사상을 중심으로.” 『신학지남』 66 (1999): 175-193; 손석태, “칼빈의 성경 해석.” 『개신논집』 9 (2009): 1-39; 안명준, “존 칼빈의 신학원리로서 성경(Scriptura)의 사용: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장로교회와 신학』 6 (2009): 205-231와 “칼빈의 성경 해석학에 사용된 성령의 조명.” 『신앙과 학문』 3 (1998): 105-118; 양신혜,

최고의 권위를 지녔다는 것만 의미할까? 좀더 포괄적인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지는 않을까? 즉, 칼빈에게 'Sola Scriptura'는 성경이 최고의 권위서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고전이기도 하며, 오직 성경의 범위에서만 신학적 사색과 목회적 실천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⁵ 칼빈 연구가들은 첫 번째 부분에 대하여는 당연시하면서도, 둘째와 셋째 부분에 대하여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또한 성경의 권위성을 말함에 있어서 오직 성경만이 실제적인 계시라는 점에서 출발한다는 점은 강조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칼빈의 'Sola Scriptura' 원칙을 살펴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2 최고의 권위, 오직 성경

'Sola Scriptura'는 칼빈의 기본적인 입장이었다.⁶ 그는 이 원칙의 핵심인

“칼빈의 성서 영감에 대한 이해: 받아쓰기.” 『조직신학연구』 12 (2009): 101-116; 정규남, “칼빈의 성경관.” 『칼빈과 개혁신학』 1999(1999): 83-105; 정규철, “칼빈의 성경무오론.” 『신학지남』 69 (2002): 186-206; 최은수, “16세기 종교개혁의 'Sola Scriptura' 원리와 그 현재적 의의.” 『개혁 신학』 12 (2002): 129-143; 하해룡, “칼빈의 성서이해.” 『기독교 사상』 12 (1968): 84-90; 허혁, “Sola Scriptura! 성서만으로!” 『기독교 사상』 11 (1967): 33-44; Najeeb George Awad, “Should we Dispense with Sola Scriptura? Scripture, Tradition and Postmodern Theology.” *A Journal of Theology* 47 (2008): 64-79; Brian C. Dennert, “John Calvin’s Movement from the Bible to Theology and Practice.” *The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54:2 (June 2011): 345-65; J. M. Frame, “In Defense of Something Close to Biblicism: Reflections on Sola Scriptura and History in Theological Method” *The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59 (1997): 269-292; Alister E. McGrath, *Reformation Thought: An Introduction*. 4th ed. (West Sussex: Wiley-Blackwell, 2012), 91-114; John T. McNeill, “The Significance of the Word of God for Calvin.” *Church History* 28 (1959): 131-146; L. F. Schulze, *Calvin’s Reply to Pighius* (Potchefstroom: Pro Rege-Press, 1971).

5 물론 성경이 실천적 규범이라 할 때, 거기에는 성경에 부합한 전통이 포함된다. 이것은 본문에서 밝혀질 것이다.

6 슐츠(Schulze)는 칼빈에게 'Sola Scriptura'는 논쟁 가운데 방어할 때 사용한 기초적인 것이라고 했다. L. F. Schulze, *Calvin’s reply to Pighius* (Potchefstroom, South Africa: Pro Rege-Press, 1971), 34.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지녔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계시에 있어서 오직 성경만이 실제적이라는 데에서 출발한다.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인간의 마음에 계시되었다.⁷ 그러나 인간의 무지와 악의로 말미암아 질식되거나 부패되었다.⁸ 또한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서도 자신을 계시하셨지만 인간은 미신과 혼란으로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한다.⁹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명상하는 일을 통해 모든 백성을 자신에게 초청하셨음에도 아무런 효과를 보실 수가 없게 된 것이다.¹⁰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는 다른 것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성경을 주셨다. 이 성경을 칼빈은 다음과 같이 안경에 비유한다.

… 하나님께서 … 자신에 대한 순수한 지식 안에서 같은 수단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은 선한 이유가 있으시다. 이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 앞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조차도 곧 녹아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노인이나 눈이 흐린 사람들, 그리고 시력이 약한 자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책 한 권을 내밀면, 어떤 종류의 책인지는 알 수 있을지라도 거의 두 낱말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나 안경의 도움을 받는다면 뚜렷하게 읽어 내려가기 시작할 것이다. 성경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7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59 ed, tr. Ford Lewis Battles,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s. XX-XXI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I. 3. 1.(이하 Calvin, *Institutes*, 권, 장, 절로 표기); *Joannis Calvini Opera Selecta*. ed. P. Barth and W. Niesel (Monachii, 1926-1936) 3. 37-38.(이하 OS 로 표기).

8 Calvin, *Institutes*, I. 4, 4. (OS 3, 43-44)

9 Calvin, *Institutes*, I. 5. 칼빈의 이러한 관점에 대하여 자연신학에 대한 논쟁이 있다. K. Barth and E. Brunner, tr. P. Fraenkel, *Natural Theology*; W. Niesel, *The Theology of Calvin*, 39ff; E. A. Dowey, *The Knowledge of God in Calvin's Theology*, 64ff. Calvin, *Institutes*, I. 5. 12.의 각주 41에서 재인용.

10 Calvin, *Institutes*, I. 6. 4. 시편 19편의 내용을 연관시켰다. “여호와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시 19:7-8)

서 혼란스러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아, 우리의 우둔함을 쫓아 버리며,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¹¹

성경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써야 하는 안경인 것이다.¹² 이 안경을 쓸 때 우리는 창조의 계시가 전할 수 없는 것을 성경이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¹³ 따라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자신을 알리신 것은 성경에서뿐이다.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안내자이며 교사이다.¹⁴

따라서 성경을 떠나면 오류에 빠지게 된다.¹⁵ 이러한 관점에서 칼빈은 성경을 떠나 직접계시로 비약하는 광신자들을 비판하였다. 그들은 성경

11 Calvin, *Institutes*, 1. 6. 1. (OS, 3, 60.) 이 안경 직유는 창조에 나타난 창조주의 계시와 연관된 것이다. 이러한 표현과 적용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고하라. B. B. Warfield, *Calvin and Calvinism*, 260 f; P. Barth, *Das Problem der natürlichen Theologie bei Calvin*; G. Gloede, *Theologia naturalis bei Calvin*; T. H. L. Parker, *The Doctrine of the Knowledge of God: A Study in Calvin's Theology*; Calvin, *Institutes*, 1. 5. 12.의 각주 41. Calvin, *Institutes*. 1. 6. 1.의 각주 1.에서 재인용.

12 Calvin, *Institutes*, 1. 14. 1. (OS 3, 153.) “나이냐 연합이나 다른 어떤 결합으로 눈이 흐릿해지면 안경의 도움 없이는 아무 것도 분명하게 알아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약함도 그와 같아서 하나님을 찾을 때 성경이 안내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곧 혼동스럽게 된다.”

13 Calvin, *Institutes*, 1. 6. 4. (OS 3, 62-63.)

14 Calvin, *Institutes*, 1. 6. 1. (OS 3, 60-61.) 성경에는 하나님에 관한 두 가지 지식이 계시되어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1권에서, 구속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2-4권에서 다루고 있다. 이것은 『기독교 강요』의 구성에 관한 논쟁과 연관된다. Cf. T. H. L. Parker, *The Doctrine of the Knowledge of God: A Study in the Theology of John Calvin* (Edinburgh/London, 1952); E. A. Dowey, *The Knowledge of God in Calvin's Theology* (New York and London: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2).

15 Calvin, *Institutes*, 1. 6. 3. (OS 3, 72-73.) “바로 위에서 말한 것처럼, 만약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난다면, 비록 우리가 아무리 서둘러 분투한다 하여도, 그 궤도에서 탈선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목적지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 결국 말씀 밖에서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보다 절뚝거리면서라도 이 길을 따라 가는 것이 더 좋다.”

을 떠나서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칼빈은 이들이 오도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광란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치 성령의 가르침을 직접 받는 것처럼 자랑하면서 성경 읽는 것을 전적으로 멸시하는 한편,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의 단순성을 비웃고 있기 때문이다.¹⁶

칼빈은 성령으로부터의 직접 계시를 비판하면서 성령의 임무를 성경과 연관시켜서 말한다.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의 임무는 새롭고 들어보지 못한 계시를 만들어내거나 새로운 종류의 교리를 위조하여 용인된 복음 교리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복음이 명령한 그 교리로 우리의 마음을 인쳐주시는 것이다.”¹⁷ 성령은 말씀을 떠나 직접 계시하지 않으신다. 그 이유를 칼빈은 다음과 같이 성령과 말씀의 결속성으로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일종의 상호 결속으로 주님은 말씀과 성령의 확실성을 결합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이 빛을 비추실 때에, 우리 마음에 말씀에 대한 완전한 신앙이 머물게 되고, 또한 우리가 그의 형상 안에서, 즉 말씀 안에서 그를 인식할 때에 속는다는 두려움 없이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¹⁸

성경은 성령과 긴밀하게 결속되어 있다. 따라서 성령은 성경으로 인정받는다 할 수 있다.¹⁹ 그러나 칼빈의 말에 반대하는 자들은, “만물이 예속

16 Calvin, *Institutes*, 1. 9. 1. (OS 3. 81-82.) 칼빈은 이러한 Libertine들의 견해를 반박하였다. 그의 소책자 *Contre la secte phantastique et furieuse des Libertins* (1545) (CR VII. 147-248), 특히 ix-xi(173-181) 참조. Calvin, *Institutes*, 1. 9. 1.의 각주 1.에서 재인용.

17 Calvin, *Institutes*, 1. 9. 1. (OS 3, 83.)

18 Calvin, *Institutes*, 1. 9. 3. (OS 3, 84.)

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을 성경에 예속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²⁰ 이에 대해 칼빈은 성경과 성령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사탄의 영이 성령의 모양으로 침투하지 않도록,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인치신 모양으로 그분을 인식하게 하신다. 성령은 성경의 저자이다. 그는 변하실 수도 없고 자신과 다를 수도 없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는 일단 성경에서 계시하신 대로 틀림없이 영원히 존속하신다.”²¹

성령이 성경의 저자라는 사실은 성경의 권위와 직결된다.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므로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²² 그렇다면 성경을 쓴 기자들과 저자로서의 성령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 칼빈은 성경의 저자로서 성령 하나님은 성경 기자들에게 계시하셔서 공적인 기록을 하게 하셨다고 한다.²³ 그는 이 성경 기자들에 대하여 성령의 비서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사도들은 성령의 확실하고 참된 비서들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후계자들은 성경에 봉인돼 있는 것을 가르치는 직분만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르칠 것

19 Calvin, *Institutes*, 1. 9. 2. (OS 3, 83.)

20 Calvin, *Institutes*, 1. 9. 2. (OS 3, 83.)

21 Calvin, *Institutes*, 1. 9. 2. (OS 3, 83.)

22 Calvin, *Institutes*, 1. 7. 1. (OS 3, 65-66.)

23 Calvin, *Institutes*, 1. 6. 2. (OS 3, 62.) 칼빈은 여기에서 성경의 영감의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계적 촉자 영감론이 아니라 유기적 영감론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Cf. J. T. McNeill, “The Significance of the Word of God for Calvin,” in *Church History* XXVIII(1959), 131-146. Calvin, *Institutes*, I. 6. 2. 각주 5.

은, 신실한 성직자들은 어떤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 단순히 하나님에 예외없이 모든 사람들이 복종하도록 하신 그 교리를 고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²⁴

성령의 비서들로서 성경 기자들은 성령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였다.²⁵ 성령이 성경의 원저자이고 성경의 기자들은 성령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비서들이라는 데에 성경의 권위가 세워진다. 이러한 성경의 권위는 교회의 권위보다 우월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어떠한 책이 정경에 편입되어야 하는가는 교회의 결정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는 교회에 좌우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성경의 권위를 교회에 두지 않고 성령에 두고 있다. 교회가 성경의 정경확립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지라도, 그 때문에 하나님께 기원을 둔 성경의 권위가 교회 위에 있다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성경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²⁶ 따라서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권한을 제한한다.²⁷

가톨릭교회는 교회의 권위를 성경 밖에 둔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그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 제정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24 Calvin, *Institutes*, 4. 8. 9. (OS 5, 141) “certi et authentici Spiritus sancti amanuenses.”(성령의 확실하고 참된 비서들) 구절이 칼빈의 축자영감설을 지지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는 다른 곳에서는 이런 견해를 명백히 지지한 적이 없으며, 여기에서 그는 그의 관심이 표현양식보다는 오히려 가르침에 있다는 것을 밝힌다. 그 말은 “어떤 새로운 교리”에 대하여 경고하려는 서두이다. 참조. L. Goumaz, *La Doctrine du salut d’après les commentaires de Jean Calvin sur le Nouveau Testament*, 110-117; H. Clavier, *Études sur le Calvinisme*, 26, 81f; E. A. Dowey, *The Knowledge of God in Calvin’s Theology*, 90ff; W. Niesel, *The Theology of Calvin*, 31-36; J. K. S. Reid, *The Authority of Scripture*, 44, 58ff; McNeill, “The Significance of the Word of God for Calvin,” 140-145. Calvin, *Institutes*, 4. 8. 9. 각주 9.에서 재인용.

25 Calvin, *Institutes*, 4. 8. 6. (OS 5, 138.)

26 Calvin, *Institutes*, 1. 7. 2. (OS 3, 66-67.)

27 Calvin, *Institutes*, 4. 8. 1. (OS 5, 133-134.)

말씀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칼빈은 단호하다. “우리는 교회의 권위는 말씀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말씀에서 교회의 권위를 분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²⁸

교회의 권위를 성경에 종속시키는 칼빈은 교회 직분자들의 권위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취한다. 그에 따르면, 교회 내의 권위도 직분자들의 권위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데에서 온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성령이 권위와 위엄을 제사장이나 예언자나 사도들의 사도나 후계자들에게 주실 때에” “그들이 선포하도록 위탁을 받은 그 말씀에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²⁹

칼빈은 교회 회의의 권위도 성경의 권위에 종속시킨다. 가톨릭교회는 교회 회의들이 성령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칼빈은 교회 회의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는지 여부에 따라 참된 것과 거짓된 것으로 구별하였다. 성경을 표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결정하는 회의는 전자에 속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회의 후자에 속한다.³⁰

또한 칼빈의 ‘Sola Scriptura’ 원칙은 교부들의 사상도 성경의 권위에 종속시켰다. 칼빈이 자신의 저서들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어거스틴의 경우, 대부분 그의 입장이 성경 해석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수용하였지만,³¹ 성경을 표준으로 그의 입장을 비판하기도 하였다.³²

28 Calvin, *Institutes*, 4. 8. 13. (OS 5, 146.)

29 Calvin, *Institutes*, 4. 8. 2. (OS 5, 134.) Cf. 4. 8. 9. (OS 5, 140-142.)

30 Calvin, *Institutes*, 4. 9. 1-2. (OS 5, 150-152.)

31 칼빈은 개혁자들의 예정론이 순전히 어거스틴의 것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어거스틴의 작품에서 광범위하게 인용했다. Cf. John Calvin, *Concerning the Eternal Predestination of God*, trans. J. K. S. Reid (London: James Clarke & Co. Ltd., 1961), 63-64. (John Calvin, *Ioannis Calvinii Opera quae supersunt omnia*, ed. G. Baum, E. Cunitz and E. Reuss (Brunsvigae, 1863-1900) 8, 266-268. (이하 CO 8, 266-268.).

이러한 성경의 권위는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가? 어디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칼빈은 인간의 이성이나 판단보다 더 높은 근원인 성령의 자증으로 이렇게 답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입장에 서 있자. 곧 성령의 내적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을 의지한다는 것, 그리고 성경은 참으로 자증한다는 것. 그러므로 성경을 증거나 이성에 종속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성경이 우리에게 지녀야 마땅한 확실성은 성령의 증언에 의해 얻는다.”³³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처럼, 참된 성경 이해에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칼빈에게 성경의 권위는 성령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요컨대, 칼빈은 인간의 내면과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도 인정했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 인간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직 성경의 계시만 실제성이 있다고 하였다. 유일하게 실제적인 성경의 계시는 오직 성경의 권위로 이어진다. 그는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고 성경 기자들은 성령의 비서들이라는 데서 성경의 권위를 세웠고, 이 근거 위에서 교회, 공의회, 교부들의 권위는 성경의 권위에 종속된다고 하였다.

3 최고의 고전, 오직 성경

칼빈에게 성경의 권위는 성경의 고전적 우수성으로 강화된다. 그는 성경이 인간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이 성경의 고전적 우수성은 그 위에 성경의 권위가 세워진다는 점에서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이다. 칼빈은 성경의 고전적 우수성을 전개함에 있어 이 점을 강조

32 비판한 예는 Calvin, *Institutes*, 1. 15. 4. (OS 3, 180.)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혼이 오성과 의지와 기억을 내포한다고 해서 그것을 삼위일체의 반영이라고 본 어거스틴의 이론은 결코 건전한 것이 못 된다.”

33 Calvin, *Institutes*, 1. 7. 5. (OS 3, 70.)

하면서 시작한다.

[성경이] 어떤 인간의 판단보다 더 높고 더 강하다는 이러한 확실성이 없다면, 논증으로 성경의 권위를 강화한다든지, 교회의 일반적인 동의로 그것을 확립한다든지, 혹은 다른 도움들을 받아 그것을 입증한다는 것은 헛된 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기초가 놓이지 않으면 성경의 권위는 언제나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³⁴

성경의 우수성은 증명할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성경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자세는 인간의 어떤 지혜보다 더 우수하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일단 우리가 성경을 존엄한 것으로 경건하게 받아들이고, 일반적인 서적들 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성경의 확실성을 마음에 심거나 고착시켜 주기에 충분하지 못했던 논증들이 매우 유용한 도움들이 되기” 때문이다.³⁵ 칼빈에게 성경이 다른 고전보다 더 우수한 점은 독자에게 문학적 기쁨을 뛰어넘는 감동을 준다는 데에 있다. 그는 자신의 체험에서 얻어진 확신으로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인간의 저작들이 아무리 기교적으로 다듬어졌을지라도 전혀 성경만큼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는 사실에서 성경의 독특한 이힘은 명백하다. 데모스테네스(Demosthenes)나 키케로(Cicero), 플라톤(Plato)이나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그리고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라. 그것들은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

34 Calvin, *Institutes*, 1. 8. 1. (OS 3, 71-72.): “Haec nisi certitudo adsit quolibet humano iudicio et superior et validior, frustra Scripturae autoritas vel argumentis munietur, vel Ecclesiae consensu stabilietur, vel aliis praesidiis confirmabitur; siquidem, nisi hoc iacto fundamento, suspensa semper manet.”

35 Calvin, *Institutes*, 1. 8. 1. (OS 3, 72.)

을 유혹하고 기쁘게 하며 감동을 주고 황홀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을 읽는 것에서 떠나 성경을 읽어보라.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성경은 매우 깊이 감동을 주고 마음 속 깊이 침투해서 골수까지 자리 잡게 되며, 그 깊은 인상과 비교되어, 웅변가들이나 철학자들이 갖게 되는 그러한 활력은 거의 사라질 것이다. 결국 인간의 노력으로 얻게 되는 모든 재능과 은혜를 훨씬 능가하는 성경이 신적인 무엇을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³⁶

이처럼 칼빈은 당시 인문주의자들이 연구하는 고전과 성경을 비교하면서, 성경이 일반 고전들과 비교하여 더 우수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성경이 모든 고전을 능가하는 감동을 주는 것은 그 기원이 신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신적인 무엇을 호흡하고 있다”는 말은 성령이 저자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성경의 우수성은 수사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지자들 중 어떤 선지자들은 우아하고 분명하며 심지어 뛰어난 어법을 구사하므로, 그들의 수사법은 세속적인 저자들에 비해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³⁷ 그리고 그러한 예들로써, 성령은 다른 곳에서 거칠고 세련되지 않은 문체를 사용할지라도 우아함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보이기 원하셨다. 그러나 감미롭고 유쾌한 언어를 사용한 다윗, 이사야, 그리고 그와 같은 이들이 기록한 글을 읽거나, 혹은 거칠고 소박한 문체를 사용한 목자 아모스, 예레미야, 그리고 스가랴를 읽든지, 내가 말한 성령의 위엄이 어디서든지 명백히 나타나 있을 것이다.³⁸

36 Calvin, *Institutes*, 1. 8. 1. (OS 3, 72.) 여기의 칼빈의 말은 그의 체험담을 반영한다. 그 고전을 탐독한 후에 성경을 경건하게 연구했을 때, 문학적 기쁨보다 감명 깊은 확신을 얻게 되었다. Calvin, *Institutes*, 2. 8. 1.의 각주 1.에서 재인용.

37 성경 저자들의 독특한 수사법에 관하여는 Augustine, *On Christian Doctrine* IV. vi. 9-vii. 21(MPL 34. 92-98; tr. NPNF II. 577-581)을 보라. Calvin, *Institutes*, 1. 8. 2. 각주 2.에서 재인용.

성경의 여러 기자들의 문체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그 통일성은 어디에서 오나? 칼빈은 성령에게서 답을 찾고 있다. 성경의 통일성은 그 내용에서 볼 수 있다. 문체에서 다른 작품들에 뒤지지 않는 성경의 내용은 어떠한가? 칼빈은 성경을 통일되게 하는 성령의 역할을 근거로 성경의 교훈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 그러기에 성경의 교훈은 성경의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이다.³⁹ 칼빈은 이렇게 신적인 기원을 바탕으로 성경의 우수성을 강조했다.⁴⁰ 성경의 우수성은 시간적 우선성에서 더 두드러진다. 칼빈은 그 중요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가 이미 다른 것들과 더불어, 성경의 고전성은 적지 않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 저술가들이 이집트 신화에 관하여 아무리 많이 이야기할지라도, 모세 시대보다 훨씬 후대의 것이 아닌 종교의 유적은 어떤 것도 현존하지 않기 때문이다.⁴¹ 그리고 모세는 새로운 신을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세월을 걸쳐 족장들로부터 전해 받은 영원한 하나님에 관하여 받아들였던 것을 말한 것이다.⁴²

38 Calvin, *Institutes*, 1. 8. 2. (OS 3, 72-73.)

39 Calvin, *Institutes*, 1. 8. 2. (OS 3, 73.): “성경에 관한 한, 아무리 심술궂은 사람들이 그것을 헐뜯으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상들로 가득차 있다. 선지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그러면 인간의 척도를 훨씬 능가하지 않는 선지자는 한 명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40 Calvin, *Institutes*, 1. 7. 4. (OS 3, 69.): “그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표시들을 본다. 이것으로부터 성경의 교훈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모든 성경은 다른 모든 저서들을 훨씬 능가한다.”

41 Tatian은 그의 저서 *Address to the Greeks* (ca. 170) xxxi, xxxvi-xli에서, 모세는 Homer와 알려진 모든 저술가들보다 이전의 사람이었다고 주장한다. 알렉산드리아의 Clement (*Stromata* I. xv), 안디옥의 Theophilus (*To Autolychus* III. xxiii), Eusebius (*Ecclesiastical History* IV. 30과 *Praeparatio evangelica* II. I), Augustine (*City of God* XVIII. xxxvii과 *On Christian Doctrine* IV. vi), 그리고 다른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들이 이 관점을 따르고 있다. Calvin, *Institutes*, 1. 8. 3.의 각주 4.에서 재인용.

42 Calvin, *Institutes*, 1. 8. 3. (OS 3, 73.): *Praeter ea quae iam attigi, non parum habet ponderis ipsa*

시간적으로 다른 모든 저자들보다 훨씬 앞선 모세가 기록한 성경은 당연히 시간적인 우선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칼빈은 모세가 자신이 말하는 교리의 전승을 먼 근원까지 거슬러 올라갔다는 점을 들어 성경의 고대성을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다. 칼빈은 한결음 더 나아가 요세푸스의 저서를 인용하면서 모세의 율법의 고전성을 확언한다.

요세푸스(Josephus)는 그의 저서 아피온 반박문(Against Apion)에서,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증언들을 고대 저자들로부터 인용한다. 이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지을 수 있다. 비록 그것이 읽혀지거나 참되게 알려지지 않았을지라도 그 율법에서 설명된 교리는 모든 민족들의 동의로 아득히 먼 시대부터 유명했다.⁴³

칼빈은 다른 고전들에 대한 모세율법의 시간적 우선성으로 성경의 고대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적으로 앞설지라도 그 내용이 거짓된 것이라면 그 가치는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위험에 대해 칼빈은 모세가 성령에 순종하여 기록하였다는 것으로 대응한다.

야곱이 약 300년 전에 하늘의 영감을 받아 자기의 후손에 관하여 선언한 것을 모세가 상기하지만, 그는 어떤 방법으로 자기의 종족을 고귀하게 하는가? 아니다. 그는 레위 사람으로 자기 지파에게 영원한 오명으로 낙인찍혔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시므온과 레

Scripturae antiquitas. Nam utcuque Graeci scriptores de Aegyptiaca theologia multa fabulentur, nullum tamen cuiusquam religionis monumentum extat quod non sit Mosis seculo longe inferius. Neque Moses novum Deum comminiscitur: sed quod de aeterno Deo longa temporum serie a patribus quasi per manus traditum acceperant Israelitae, proponit."

43 Calvin, *Institutes*, 1. 8. 4. (OS 3, 74.) Augustine, *City of God* XVIII. xl (MPL 41.599; tr. NPNF II. 384). 유대 역사가인 Flavius Josephus는 유대인의 고대성에 관하여 Apion을 반박하는 그의 두 저서에서 모세의 율법은 이교 입법자들의 법들보다 이전 것이며 또한 더 공정하고 인도 주의적이라고 주장한다. *Contra Apionem* I. xxii; II. xxxvi; II. xxxix (CSEL 37•36, 132, 137ff.; LCL Josephus I. 226ff., 394ff., 405f.)를 보라. Calvin, *Institutes*, 1. 8. 4.의 각주 5.에서 재인용.

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창 49:5-6) 분명히 그는 자기 조상을 아낄 뿐만 아니라 그 자신과 그의 전 가족을 똑같은 불명예로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러한 부끄러움에 관하여 침묵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다. … 그가 자기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사악하게 불평하는 소리를 상기할 때에[민 12:1], 그가 자기 육신의 느낌으로 말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면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가?⁴⁴

성경의 진정성은 성경의 영감과 이에 대한 성경기자들의 순종에 있다는 것을 칼빈은 간파하였던 것이다. 칼빈은 특히 모세의 예를 많이 들고 있다. 성경 기자들 중 가장 오래 전의 인물이므로 성경의 고대성을 증명하기 위해 적합했을 것이다. 그런데 칼빈 당시 모세가 실재적인 인물이었는지를 문제 삼는 자들도 있었다. 이에 대해 칼빈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키케로 같은 인물이 실재하는 것처럼 모세도 그러하다고 못 박는다.⁴⁵

성경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쓰여졌을지라도 그 전승과정에서 변질될 가능성은 있다. 그 진리가 왜곡될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칼빈은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모세의 율법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놀랍도록 잘 보존되었다. 비록 그 율법이 제사장들의 게으름으로 인하여 잠

44 Calvin, *Institutes*, 1. 8. 4. (OS 3, 74.)

45 Calvin, *Institutes*, 1. 8. 9. (OS 3, 77.): “그들은 모세가 존재했던 인물이었는지를 감히 문 제삼는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키케로가 존재했었는지를 의심한다면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은 마땅히 주먹이나 채찍으로 징계 받아야 한다고 누가 말하지 않겠는가?”

시 파문혀 있었으나, 경건한 왕 요시야가 그것을 발견한 후부터는(왕하 22:8; 대하 34:15) 대대로 계속해서 읽혀져 왔다.” 그리고 “모든 거룩한 저작들의 저작은 오직 한 길로, 곧 손에서 손으로 그 후손에게 전승되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확실하다.”고 덧붙인다.⁴⁶

율법이 전승과정에서 하나님이 섭리로 보존되었음을 증명한 칼빈은 율법의 전승과정에서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자들도 알고 있었다. 여기에 대하여 칼빈은 다음과 같이 역사적으로 논박한다.

안티오쿠스(Antiochus)가 모든 책들을 불태우라고 명령한 이래[마카비전서 1:56-57],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본들이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그들은 묻는다. 그러나 어떤 작업장에서 그것들이 그렇게 빨리 위조될 수 있었는지 나는 반문한다. 왜냐하면 그 박해들이 끝난 후 즉시 그 책들이 존재했고, 그것들의 교리에 따라 양육되고 그것들을 익숙하게 알고 있던 모든 경건한 자들에 의해 논쟁의 여지없이 인정받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사악한 사람들이 마치 공모하는 것처럼 파렴치하게 유대인들을 모욕했을지라도, 아무도 감히 그들이 위서들을 대용했다고 비난한 사람은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유대인들의 종교가 무엇이든지, 그들은 모세가 유대교의 교조라고 시인하기 때문이다. (전 역사의 동의로 그 거룩한 고대성이 확증된) 이 책들이 가짜라고 그들이 거짓말을 할 때, 이 떠벌이들은 개보다 더한 파렴치함을 드러내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는가?⁴⁷

칼빈은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을 때의 상태로 보존되어 전승되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는 여기에서 성경의 고대성이 역사적으로 확증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46 Calvin, *Institutes*, 1. 8. 9. (OS 3, 77-78.)

47 Calvin, *Institutes*, 1. 8. 10. (OS 3, 78.)

이와 같이 칼빈은 성경이 최고의 고전이라는 것을 성경의 높은 문학적 과 고대성으로 증명하였다. 성경의 문학적성은 수사법, 문체, 내용 등에서 찾았고, 고대성은 다른 모든 고전보다 시간적으로 앞섰다는 시간적 우선성과 역사적인 전승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유지된 진정성과 역사성 등에서 찾았다. 성경의 우수한 고전성은 성경의 권위를 지지한다.

4 실천의 규범, 오직 성경

칼빈의 'Sola Scriptura'는 성경에 최고의 권위와 최고의 고전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실천의 영역까지 지배한다. 오직 성경에 따라 그 안에서만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칼빈이 오직 성경을 실천의 규범으로 삼은 것은 그의 예정론에서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다. 이것은 그의 예정론이 신앙고백적이고 성경적인 교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⁴⁸

이 원칙에 따라 칼빈은 성경을 넘어서 지나치게 사색하는 것을 경계하고 성경 안에서만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고 가르친다.⁴⁹ 그는 교회에게도

48 김종희, "The Character of Calvin's Doctrine of Predestination,"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87 (2013): 103-118. 이 칼빈의 예정론의 성격에 대한 견해는 다양한데, 이 중 그 교리가 연역적이고 사변적이라는 입장과, 그 교리가 신앙고백적이고 비논리적이라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전자의 입장에 선 대표적인 인물은 Bois와 Neese이다. H. Bois, "La Prédestination d'après Calvin," *Études sur la Réforme* (Paris: Librairie Armand Colin, 1919), 674f; Neeser, *Le Dieu de Calvin* (Neuchâtel: Secrétariat de l'Université, 1956); Fullerton, "Calvinism and Capitalism," p. 172. 반면 칼빈의 예정론이 신앙고백적이고 비논리적이라는 입장에 서있는 자는 Monod와 Doumergue이다. Victor Monod, "La Pédestination Calviniste," *Foi et Vie*, (1909), 645; Emile Doumergue, *Jean Calvin, Les Hommes et les choses de son temps*, vol. 4(Lausanne: G. Bridel et Cie, 1897-1927), 358. Quoted in C. Partee, *Calvin and Classical Philosophy* (Leiden: E. J. Brill, 1977), 139-140, n. 61. 줄고는 이 중에서 후자의 입장을 지지하며, 더 나아가 칼빈의 예정론이 신앙고백적이고 성경적이며 이중적인 교리일 뿐 아니라 삼위일체론적인 교리라는 논증하고 있다.

49 Calvin, *Institutes*, 1. 14. 4. (OS3, 156). "너무 길게 말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모든 종교 교리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 외에 모호한 것들에 관하여는 어떤 것도 말하거나 추측하거나 알려고도 하지 않도록 겸손과 절제의 규칙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기

성경을 지혜의 한계로 설정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학생인 교회는 배우자이며 선생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치신 곳이 곧 지혜의 한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⁵⁰ 성경을 규범으로 하는 신학자의 모델은 바울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신학자의 임무는 잡담으로 귀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참되고 확실하며 유익한 것들을 가르쳐서 양심을 강화하는 것이다. ... 셋째 하늘로 들림 받은 바울은[고후 12:2] 그것에 관하여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사람도 자기가 본 비밀스러운 것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증언하였다[고후 12:4]. 그러므로 그러한 어리석은 지혜를 버리고, 주님이 천사들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시는 것을 성경의 단순한 가르침 안에서 검토하자.⁵¹

여기에서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 그 범위에서만 신학적 탐구를 해야 한다는 칼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바가 다 기록되어 있으므로, 바울처럼 성경의 단순한 교훈을 붙잡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이다. 칼빈은 특히 예정론을 전개할 때 이 점을 매우 강조하였다. 그는 성경을 넘어서는 지나친 호기심의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예정에 관한 논의는 그 자체가 이미 다소 어려운 것인데, 사람의

억하자. 더욱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건덕에 도움 되는 것들을 찾아내어 명상하도록 끊임 없이 노력해야 한다. 무익한 것들에 대한 호기심이나 탐구하는 데에 빠지지 말자. 그리고 주님은 무익한 문제들이 아니라 건전한 경건과 자기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과 참된 신뢰와 거룩의 의무들에서 우리를 가르치기를 원하셨으므로, 이러한 지식으로 만족하자.”

50 Calvin, *Institutes*, 4. 8. 13. (OS 5, 146-147.)

51 Calvin, *Institutes*, 1. 14. 4. (OS 3, 157.)

호기심은 그것을 매우 혼동스럽고 위험하게까지 만든다. 인간의 호기심이 금지된 샷길에서 방황하며 높은 곳으로 돌진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허락된다면 그것은 찾을 수 없고 해명할 수 없는 비밀을 하나님께 남겨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무모하고 뻔뻔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각 처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쁘지 않았겠지만-그들에게 적절한 때에 이 점에서 그들의 의무의 한도를 깨우쳐 줄 것이다.⁵²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호기심을 칼빈은 경계하고 있다. 호기심으로 성경을 벗어나는 것은 미로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⁵³ 성경을 넘어서는 호기심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비밀로 침투하면 미로에서 길을 잃게 되어 심연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을 성경에 계시하셨으니 그 범위 내에서 우리는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말씀의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에 바른 길을 벗어나 암흑 속으로 들어가 헤매며 미끄러지게 된다.⁵⁴ 따

52 Calvin, *Institutes*, 3, 21, 1. (OS 4, 370):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쁘지 않았겠지만”이라는 말은 츠빙글리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었다. 칼빈은 1551년 12월 불령거가 칼빈에게 보낸 서신을 반영하는, 1552년 1월 불령거에게 보내는 사신(CR XIV. 215, 253; OS 4, 370, n. 4)에서 츠빙글리의 *On Providence*(주로 예정론에 관하여)를 혹평했다, Calvin, *Institutes*, 3, 21, 의 각주 6.에서 재인용. Cf. 김종희, “칼빈의 예정론의 근거와 성격,” 『현대와 신학』 제26집(2001년): 392-393.

53 Calvin, *Institutes*, 3. 21. 1. (OS 4, 370.): “예정을 탐구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태연하고 자신 만만하게 이곳에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호기심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며, 미로에 들어가 빠져나올 곳을 찾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깊이 감추어 두기로 정하신 일을 사람이 마음대로 탐색하거나, 가장 숭고한 지혜를 사람이 영원 자체로부터 풀어내려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지혜를 이해하기보다는 경외하기를 원하시며, 경외함으로써 찬탄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의 비밀의 뜻은 그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였다. 우리에게 관계되며 유익하리라고 예견하신 범위 내에서 계시하기로 결정하신 것이다.”

54 Calvin, *Institutes*, 3. 21. 2. (OS 4, 371.): “Scimus enim, ubi primum verbi fines excesserimus, nobis extra viam et in tenebris esse cursum, in quo errare, labi, impingere identidem, necesse sit.

라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⁵⁵ 이렇게 칼빈은 성경이 탐구의 한계임을 강조하고 있다.

칼빈은 예정론에 관하여 피기우스(Pighius)와 논쟁할 때도 성경을 유일한 규범으로 삼았다.⁵⁶ 그에게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가르침 받아 그의 단순한 말씀 속에 그가 계시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었다.⁵⁷

성경을 유일한 규범으로 삼는다는 원칙에 따라, 칼빈은 성경을 넘어서는 사변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침묵하는 것도 경계한다. 칼빈은 예정론에 대해 침묵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들을 염두에 두고 칼빈은 다음과 같이 그 위험성을 지적한다.

이런 폐해를 없애려는 생각으로 어떤 사람들은 예정에 대해서 일체 말하지 않는다. 암초를 피하듯이, 그들은 이 문제를 피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친다.⁵⁸ 그들은 이 신비한 문제를 논할 때에는 심히 침착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그들의 이 온건한 태도는 칭찬할 만하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도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므로, 쉽사리 제한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지성에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점에서도 올바른 한도를 지키기 위해서

55 Calvin, *Institutes*, 3. 21. 2. (OS 4, 371.)

56 김종희, “칼빈의 예정론의 근거와 성격,” 394. “1539년판 「기독교 강요」에서 예정론 취급방법의 가능성을 3가지로 말한 칼빈은 피기우스와의 논쟁에서는 4가지로 소개한다. 그 중 첫째 가능성은 칼빈의 적수들이 한 것처럼 비난받고 거부될 수 있다. 둘째, 호기심과 합리적 사색으로 연구될 수 있다. 셋째, 예정의 깊이에 대한 두려움에서 그것에 관하여 침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성경의 범위 내에서 진지하게 드러날 수 있다. 칼빈은 처음 세 가지의 가능성들을 거부하고 유일하게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마지막 가능성을 수용한다.” Cf. Schulze, *Calvin's Reply to Pighius*, 120; Otten, *Calvins theologische Anschauung von der Prädestination*, 31; Calvin, *Institutes*, 3, 21, 1-4. (OS 4, 368-373.)

57 Schulze, *Calvin's Reply to Pighius*, 121.

58 Cf. Melancthon, *Loci theologici*(1535) (CR Melancthon XXI. 452); Cadier, *Institution III*. 395, note 6. Calvin, *Institutes* 3. 21. 3.의 각주 9.에서 재인용.

우리는 주의 말씀에서 지성에 관한 확실한 법칙을 찾아야 한다. 성경은 성령의 학교이며, 여기서는 필요하고 유익한 지식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 동시에, 유익한 지식이 아니면 아무 것도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예정에 대해서 밝힌 것을 신자들에게서 빼앗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⁵⁹

여기에서 우리는 칼빈이 얼마나 성경을 규범으로 고수하는지 알 수 있다. 성경에 있는 것은 모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므로 무시하거나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나친 사변과 침묵은 동시에 칼빈의 'Sola Scriptura'에 위배되는 것이다. 칼빈은 이 둘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오직 성경 안에서, 성경 안에서 탐구하고 말해야 한다고 한다. 칼빈의 말에 기울여 보자.

그러므로 주님이 입을 다무실 때는 즉시 모든 탐구의 길을 닫는다는 제한조건만 있다면,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그의 입과 귀를 열도록 허락해야 한다. 우리에게 침착한 태도의 최선의 한계는 배울 때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르치기를 그칠 때에는 알려고 하는 것을 멈추어야 하는 것이다.⁶⁰

이렇게 칼빈은 무익한 사색과 무지를 똑같이 비판했다. 이러한 칼빈의 입장은 다음의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그들이 일반적으로 인정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이다. 즉 우리는 주께서 비밀로 숨겨 두신 것은 탐색하지 말아야 하며, 공개하신 것은 경시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한편으로 과도한

59 Calvin, *Institutes*, 3. 21. 3. (OS 4, 371-372.)

60 Calvin, *Institutes*, 3, 21, 3. (OS 4, 371-372.).

호기심을 가졌다는 비난을 피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도 은총을 모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다.⁶¹

칼빈에게 성경 범위를 넘어서는 지나친 사변과 성경에 있는 것을 경시하는 것은 모두 위험해 보였다. 그에게는 성경 범위 내에서 탐구하고 말하는 것, 즉 ‘Sola Scriptura’ 원칙이 실천의 유일한 규범이었기 때문이다.

5 결론

대부분의 칼빈 연구가들은 칼빈이 성경을 신학의 원천으로 삼고 있다는 데에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는 ‘Sola Scriptura’ 원칙이 칼빈에게 단순히 신학의 원천으로서의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지녔다는 것만 의미한다기보다 좀더 포괄적인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으리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원칙을 살펴보았다.

이 목적을 위해 우리는 성경의 계시에서 출발하였다. 칼빈은 인간의 내면과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도 인정했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 인간

61 Calvin, *Institutes*, 3. 21. 4. (OS 4, 373.) : “Tantum illud in universum obtinere apud eos cupio ut quae in occulto recondita Dominus reliquit, ne scrutemur: quae in apertum protulit, ne negligamus: ne aut una ex parte nimiae curiositatis: aut ex altera, ingratitude damnemur.” 칼빈은 이 문장에 이어 어거스틴을 인용하면서 강조했다. “어거스틴도 이 생각을 잘 표현하였다. 곧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굶어보면서 천천히 걷듯이 성경도 약한 우리가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전진하므로, 우리는 안심하고 성경을 따라갈 수 있다고 하였다.” Augustine, *On Genesis in the Literal Sense* V. 3, 6 (MPL 34. 323), Calvin, *Institutes*, 3, 21, 4. (OS 4, 373.)에서 재인용. Cf. 김중희, “칼빈의 예정론의 근거와 성격,” 394. 각주 37).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모두 우리에게 유익하고 꼭 필요한 것들이다. 예정에 관한 말씀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예정에 관해서는 침묵하는 편이 나으므로 설교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을 염두에 두고 칼빈은 예정론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와 관계있으며 그것을 제시해야만 한다는 것을 성경으로 증명했다. 하나님의 예정에 관해 설교하기를 주저하는 것은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혹시 실족하지나 않을지 걱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칼빈은 그러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예정교리를 설교해야 한다고 했다. Cf. Schulze, *Calvin's Reply to Pighius*. 117.

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직 성경의 계시만 실제성이 있다고 하였다. 유일하게 실제적인 성경의 계시는 성경의 권위로 이어진다. 그는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고 성경 기자들은 성령의 비서들이라는 데서 성경의 권위를 세웠고, 이 근거 위에서 공의회, 교부들을 포함한 전통의 권위는 성경의 권위에 종속시켰다. 최고의 권위는 오직 성경에 있다.

성경의 권위는 성경의 고전성과 연관된다. 칼빈은 성경의 고전성을 성경의 높은 문학적성과 고대성으로 증명하였다. 성경의 문학적성은 수사법, 문체, 내용 등에서 찾았고, 고대성은 다른 모든 고전보다 시간적으로 앞섰다는 시간적 우선성과 역사적인 전승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유지된 진정성과 역사성 등에서 찾았다. 성경의 우수한 고전성은 성경의 권위를 지지한다. 최고의 고전은 오직 성경이다.

칼빈은 성경을 넘어서는 무익한 사색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를 똑같이 비판하였다. 성경에 있는 것은 모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므로 무시하거나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께서 비밀로 숨겨 두신 것은 탐색하지 말아야 하며, 공개하신 것은 경시하지 말아야 한다."⁶² 신학과 목회를 포함하는 실천의 범위를 성경으로 제한한 것이다. 실천의 규범은 오직 성경이다.

요컨대, 칼빈의 'Sola Scriptura' 원칙은 '최고의 권위는 오직 성경', '최고의 고전은 오직 성경', '실천의 규범은 오직 성경'을 의미한다. 루터가 성경과 전통이라는 양자 사이의 긴장관계에서 성경의 우위성을 확신하고, 츠빙글리가 성경이 전통보다 역사적으로 우선한다는 점에서 전통에 대한 성경의 우위성을 말했다면, 칼빈은 양자의 입장을 종합했다고 할 수 있다.

62 Calvin, *Institutes*, 3. 21. 4. (OS4, 373.)

참고문헌

- 고광필. “칼빈의 성경 해석 논리.” 『光神論壇』 7(1995): 201-254.
- _____. “칼빈의 성경해석의 원리와 방법.” 『光神論壇』 18(2009): 87-123.
- 김명배. “성경과 전통의 관계의 신학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관한 연구.” 『현상과 인식』 35(2011): 77-101.
- 김영규. “칼빈에 있어서 오직 성경.” 『神學正論』 11(1993): 569-594.
- 김은수. “칼빈 신학에 있어 성경과 성령의 관계성에 관한 고찰.” 『성경과신학』 45(2008): 72-111.
- 김중희. “칼빈의 예정론.” 『기독교신학저널』 4(2003): 159-184.
- _____. “칼빈의 예정론의 근거와 성격.” 『현대와 신학』 26(2001): 386-405.
- 명신홍. “성경을 정당하게 사용할 것(딤후 3:14-17).” 『신학지남』 29(1962): 70-79.
- 문석호. “신학적 사고의 근원으로서의 계시이해 -성경적 가르침과 세속 철학의 구분을 시도한 칼빈(John Calvin)의 사상을 중심으로.” 『신학지남』 66(1999): 175-193.
- 손석태. “칼빈의 성경 해석.” 『개신논집』 9(2009): 1-39.
- 안명준. “존 칼빈의 신학원리로서 성경(Scriptura)의 사용: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장로교회와 신학』 6(2009): 205-231.
- _____. “칼빈의 성경 해석학에 사용된 성령의 조명.” 『신앙과 학문』 3(1998): 105-118.
- 안인섭. “칼빈의 성경 해석학(Biblical Hermeneutics)이 제네바 사역(Pastoral Work)에 미친 영향.” 『개혁논총』 12(2009): 73-107.
- 양신혜. “칼빈의 성서 영감에 대한 이해: 받아쓰기.” 『조직신학연구』 12(2009): 101-116.
-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7.
- _____. “종교개혁자들의 성경해석.” 『연세대학교 연신원 목회자 하기 신학세미나 강의집』(2000.): 151-162.
- 임용섭. “칼빈의 성경해석학적 공헌.” 『개혁논총』 12(2009): 109-150.
- 정규남. “칼빈의 성경관.” 『칼빈과 개혁신학』 1999(1999): 83-105.
- 정규철. “칼빈의 성경무오론.” 『신학지남』 69(2002): 186-206.
- 조병수. “기독교강요(최종판 1559년)에서 칼빈의 성경 사용(1권 1장의 사례).” 『神學正論』 27(2009): 15-36.
- 최은수. “16세기 종교개혁의 ‘Sola Scriptura’ 원리와 그 현재적 의의.” 『개혁 신학』 12(2002): 129-143.
- 하해룡. “칼빈의 성서이해.” 『基督教思想』 12(1968): 84-90.
- 허혁. “Sola Scriptura! 성서만으로!” 『基督教思想』 11(1967): 33-44.

- Awad, Najeeb George. "Should we Dispense with Sola Scriptura? Scripture, Tradition and Postmodern Theology." *A Journal of Theology* 47(2008): 64-79.
- Calvin, John.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Edited by G. Baum, E. Cunitz and E. Reuss, 59vols. Brunsvigae, 1863-1900.
- _____. *Joannis Calvini Opera Selecta*. Edited by P. Barth and W. Niesel. 5vols. Monachii, 1926-1936.
- _____. *Concerning the Eternal Predestination of God*. Translated by J. K. S. Reid. London: James Clarke & Co. Ltd., 1961.
- _____.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59 edition*, Translated by Ford Lewis Battles. 2vols.,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vols. XX-XXI.
- Dennert, Brian C. "John Calvin's Movement from the Bible to Theology and Practice." *The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54:2(June 2011): 345-65.
- Frame, J. M. "In Defense of Something Close to Biblicism: Reflections on Sola Scriptura and History in Theological Method." *The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59(1997): 269-292.
- González, J. L.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3vols, 2nd edition. Nashville: Abingdon Press, 1987.
- Kim, Jong-Hee. "The Character of Calvin's Doctrine of Predestination."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87(2013): 103-118.
- McGrath, Alister E. *Reformation Thought: An Introduction*. 4th ed. West Sussex: Wiley-Blackwell, 2012.
- McNeill, John T. "The Significance of the Word of God for Calvin." *Church History* 28(1959): 131.
- Partee, C. *Calvin and Classical Philosophy*. Leiden: E. J. Brill, 1977.
- Schulze, L. F. *Calvin's Reply to Pighius*. Potchefastroom: Pro Rege-Press, 1971.
- Wendel, François. *CALVIN: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tr. by Philip Mairet. London: Collins, 1973.

국문초록

인간의 내면과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도 있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 오직 성경의 계시만 실제성이 있다고 하는 데서 칼빈의 성경관이 시작된다. 그는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고 성경 기자들은 성령의 비서들이라는 데서 성경의 권위를 세웠고, 이 근거 위에서 공의회와 교부들을 포함한 전통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에 종속시켰다. 최고의 권위는 오직 성경에 있다는 것이다.

성경의 권위는 성경의 고전성과 연관된다. 칼빈은 성경의 고전성을 성경의 높은 문학과 고대성으로 증명하였다. 성경의 문학적성은 수사법, 문체, 내용 등에서 찾았고, 고대성은 다른 모든 고전보다 시간적으로 앞섰다는 시간적 우선성과 역사적인 전승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유지된 진정성과 역사성 등에서 찾았다. 최고의 고전은 오직 성경이라는 것이다.

칼빈은 성경을 넘어서는 무익한 사색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를 똑같이 비판하였다. 그리하여 주님이 비밀로 숨겨 두신 것은 탐색하지 말아야 하며, 공개하신 것은 경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신학과 목회를 포함하는 실천의 범위를 성경으로 제한한 것으로, 실천의 규범은 오직 성경이라는 것이다.

요컨대, 칼빈의 ‘Sola Scriptura’ 원칙은 최고의 권위는 오직 성경에 있고, 최고의 고전은 오직 성경이며, 실천의 규범은 오직 성경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주제어: 오직 성경, 최고의 권위, 최고의 고전, 실천의 규범, 솔라 스크립투라.

Calvin's 'Sola Scriptura'

Kim, Jong-Hee
Baekseok University

Calvin's view on the Scriptures begins by saying that God reveals the actual knowledge of Himself upon us only in the Scriptures. And he established their authority in that their real author is the Holy Spirit and their writers are the secretaries of the Spirit. On the basis, Calvin subordinated the authority of traditions including ecclesiastical councils and church fathers. Only the Scriptures have the supreme authority.

Calvin proved the classicality of the Scriptures with their high literary character and their ancient history. The former lies in the better rhetoric, style, and substance than other all classics, and the latter is derived from the time priority than other all classics. Only the Scriptures are the supreme classics.

Calvin criticized the useless speculations beyond the Scriptures and ignorance of the Word equally. He pointed out that we should not search what the Lord left in a secret and not neglect what He opened for us to know. Thus Calvin confined the limits of actions in theology and pastoral circumstances. Only the Scriptures are the standard of actions.

In short, Calvin's principle of the 'Sola Scriptura' means that only the Scriptures have the supreme authority, only the Scriptures are the supreme classics, and only the Scriptures are the standard of actions.

Key Words: Sola Scriptura, only the Scriptures, the Supreme Authority, the Supreme Classics, the Standard of Actions.